

< 별첨 >

---

**인터넷전문은행**  
**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**  
**(2024~2026년)**

---

**2023. 12.**

**금 융 위 원 회**  
**금 융 감 독 원**

I. 검토배경 .....	1
II. 「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」 이행현황 ...	1
1. 이행현황 .....	1
2. 평가 .....	3
III. '24~'26년 중·저신용자 대출공급 계획 .....	4
1. 은행별 대출공급, CSS고도화, 건전성관리 계획 ..	5
2. 관리·감독 방안 .....	8
IV. 향후 계획 .....	8

## I. 검토배경

- 『인터넷전문은행 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』('21.5월)에 대한 '23년까지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, '24년 이후의 계획을 수립

## II. 「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」 이행 현황 및 평가

### 1 이행현황

#### 1) 대출 공급

##### < '21.5.27. 보도자료 내용 >

- '23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'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 검토

- ① 카카오뱅크·케이뱅크 및 토스뱅크의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\*을 단계적으로 확대 ⇨ **'23년말 30% 상회 목표**

\* 중·저신용자(신용평점 하위 50%) 대상 신용대출 잔액/전체 신용대출 잔액

- ②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가계부채 관리 정책,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 확대

- 중·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, 대출 규모 면에서도 크게 증가

- (비중) '21.5월 각 은행이 제출한 자체계획과는 일부 간극이 있으나, 금융당국과 함께 설정한 '23년말 30% 상회 목표에는 근접

- '23년 11월말 기준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30.1%, 토스뱅크 32.3%, 케이뱅크 28.1%

##### < 인터넷전문은행 중·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(단위 : %) >

구 분	'20년말	'21년말	'22년말	'23년 11월말	은행자체계획 ( '23년말)
카카오뱅크	10.2	17.0	25.4	30.1	30
토스뱅크	-	23.9	40.4	32.3	44
케이뱅크	21.4	16.6	25.1	28.1	32
계	12.1	17.1	29.1	30.3	

\* 사잇돌대출(서울보증보험 보증부 대출) 등 보증부 대출 제외 (이하 동일)

- 금리상승 과정에서 중·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은 상승 추세

<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(중저신용자) 연체율 추이 (단위 : %) >

구 분	'20년말	'21년말	'22년말	'23년 11월말
카 카 오 뱅 크	0.82	0.48	1.23	<b>1.76</b>
토 스 뱅 크	-	0.00	1.46	<b>2.56</b>
케 이 뱅 크	2.95	1.77	2.81	<b>3.92</b>
계	1.44	0.82	1.71	<b>2.51</b>

- (잔액)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'23년 11월말 기준 3사 합계 9.57조원까지 증가('20년말 대비 **4.73배 증가**)

< 인터넷전문은행 중·저신용자 대출 잔액 (단위 : 억원) >

구 분	'20년말	'21년말	'22년말	'23년 11월말
카 카 오 뱅 크	14,380	24,643	32,414	<b>43,149</b>
토 스 뱅 크	-	1,260	28,915	<b>30,634</b>
케 이 뱅 크	5,852	9,725	20,771	<b>21,929</b>
계	20,232	35,628	82,100	<b>95,712</b>

## 2) CSS\* 고도화

\* 신용평가시스템 (Credit Scoring System)

< '21.5.27. 보도자료 내용 >

- 인터넷전문은행이 중·저신용자에 대한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CSS 고도화 병행 추진

- 실제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 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

- 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와 비금융활동정보 및 기타 대안정보 등을 결합한 데이터를 통해 대안 신용평가모형을 개발·운영 중

※ 인터넷전문은행별 CSS 고도화 추진 내역

- (카카오뱅크) 통신·부동산정보, 카드사 가맹점 정보 등 대안정보를 가명결합하여 대출신청평점 모형을 개발하였고, 7개 기관의 약3,700만건의 가명결합데이터를 활용하여 '카카오뱅크 스코어'를 개발적용하였으며,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모형도 개발

- **(토스뱅크)** 토스앱기반 비금융활동정보, 마이데이터,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정보 등을 활용하여 **토스뱅크 신용평가모형(TSS, Toss Scoring System)** 개발·운용
- **(케이뱅크)** 소득, 신용이력 등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통신(KT) 및 유통 등 대안 정보를 **케이뱅크 신용평가모형(KSS, Kbank Scoring System)**에 반영

- 여신심사가 어려웠던 중·저신용자, 금융 이력 부족자(Thin Filer) 등에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, 고객들에게 금리인하 혜택 부여 중

#### ※ CSS 고도화를 통한 중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내역

- **(카카오뱅크)**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고객 변별력 향상으로 연 4,600억원 규모의 중·저신용대출 “추가” 승인 (기존대비 약 15% 증대효과)
- **(토스뱅크)** CB\*사 기준 중저신용자였던 약 10만명의 고객을 고신용자로 재평가하여 2.1조원의 신용을 공급하였고, 등급이 상향된 중저신용자는 평균 260bp의 금리인하 경험  
\* Credit Bureau, 개인신용조회회사
- **(케이뱅크)** 대안정보 활용으로 변별력을 강화, 고객의 84%에 대한 평가등급이 상향되었으며, 평균 64bp 금리 인하 효과

## 2 평가

- 중·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가 '20년말 대비 4.7배 증가하고 '23년말 목표인 30%에 근접하는 등 소기의 성과 달성
- 기존 금융정보 외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하여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향상시켜 신용공급 증대 및 금리인하 등 효과 시현
- 다만, 금리상승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 등을 감안시 안정적인 중·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 강화와 함께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추가 고도화 등 필요

### Ⅲ. '24~'26년 중·저신용자 대출공급 계획

#### < 기 본 방 향 >

- ① **(대출 공급)**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중·저신용자\* 신용대출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목표 수립

\* KCB 기준(이하 동일)

- '24~'26년간 중·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: **평잔 30% 이상**

- <sup>i)</sup>전체 차주 중 중·저신용자 비중이 50%이고, <sup>ii)</sup>고신용자에 비해 중·저신용자의 대출액 규모가 작으며, <sup>iii)</sup>중·저신용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, 목표비중을 30% 수준보다 높이는 데 한계
- 그간 중·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높이는 과정에서 '말잔' 기준으로 운영이 불가피하였으나, 30% 수준에 이른 만큼 안정적 관리를 위해 '말잔' 기준을 '평잔'으로 전환

- **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\***과 서민금융대출 중 보증한도 초과 대출잔액을 비중산출에 포함

\* 소호(SOHO) 신용평점 4등급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, 소호등급이 없을 경우 대표자 개인의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중·저신용자 분류

- **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**

- (현행) '개인'의 신용대출 만을 대상으로 비중 산정
- (개선) 경기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업·자영업 운영하는 중·저신용자 대상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포함

- **서민금융대출**

- (현행) 햇살론 등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 전액이 비중에서 제외
- (개선) 보증한도(예: 햇살론뱅크 90%) 초과 대출잔액(예: 햇살론뱅크 10%) 포함

- **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** 가계부채 관리 정책,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 확대

- ② **(CSS고도화)** 금리상승 과정에서 연체율 관리와 중·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추가 고도화 지속 추진

- ③ **(건전성관리)** 중·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성 및 유동성 등 기초체력을 충실히 다지도록 유도

## 1) 카카오뱅크

□ **(대출공급)** 향후 3년간 5.23조원까지 중·저신용자 대출 잔액 규모를 확대할 계획

- CSS 고도화로 금융이력부족자(ThinFiler)에 대한 변별력을 확대하고 안정적 대출 기반을 마련, 지속 가능한 중·저신용대출 공급체계 확충

<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계획 (단위: 억원) >

구 분	'23년 11월말	'24년	'25년	'26년
중·저신용대출 잔액	43,149	48,193	50,347	52,333

\* 개인신용대출 점유율, 정부 가계부채관리정책, 중저신용대출 건당 취급규모 등 고려·산정

\*\* '23년 11월말은 말잔(개인사업자신용대출 등 미포함), '24~'26년은 평잔(개인사업자신용대출 등 포함)

□ **(CSS고도화)** 신용평가모형 재개발,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대안정보 활용 확대, 대환대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 추진

- 중·저신용자 대출신청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출신청평점모형 재개발
- 차량관련정보, 유통정보, 입출금정보 등 대안정보의 유의미성 검토 등을 통한 카카오뱅크스코어 고도화 진행
- 대환대출을 신청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환대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

□ **(건전성관리)**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, 조달원천 다변화,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등을 통해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제고

- (선제적인 충당금 적립) 중·저신용대출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약 2.5~3배의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
- (조달원천 다변화) 중·장기적으로 은행채 발행 등 조달원천의 다변화 시도 예정 (현재 신용등급 AA+\_3대 신평사 기준)
- (부실채권 관리) 취약·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원금상환 유예, 채무감면 정책 개편 및 캠프를 통한 매입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검토

## 2) 토스뱅크

□ **(대출공급)** 향후 3년간 4.78조원까지 중·저신용자 대출 잔액 규모를 확대할 계획

- CSS고도화와 상품성 개선 및 판매채널 확대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중·저신용자를 포용할 계획
- 특정 차주의 대출을 중단하거나 신용 대비 과도한 한도를 부여하는 왜곡된 공급은 지양

### <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계획 (단위: 억원) >

구 분	'23년 11월말	'24년	'25년	'26년
중·저신용대출 잔액	30,634	43,867	45,852	47,837

\* '23.12월 기준 경영환경 및 자산성장 예상치로 추정

\*\* '23년 11월말은 말잔(개인사업자신용대출 등 미포함), '24~'26년은 평잔(개인사업자신용대출 등 포함)

□ **(CSS고도화)** 신규 대안정보를 발굴하고 인공지능(AI)기반의 신용평가 모델링을 적용하여 TSS\*의 완성도와 성능을 지속 제고

\* 토스뱅크 신용평가모형 (Toss Scoring System)

- 다양한 비금융사와 정보제휴를 통해 신규 대안정보를 발굴하고 신용평가에 비중있게 활용
- 최신 AI기반 모델링 기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신용평가 모형의 성능을 제고하고 건전한 중·저신용자를 보다 폭넓게 포용
- 머신러닝/딥러닝 알고리즘을 신용평가에 적합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 및 인력 강화, R&D 등 적극적인 투자 지속

□ **(건전성관리)** 중·저신용자 대출 리스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연체율, 부실채권, 자본 및 유동성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

- 매·상각 등 적극적인 부실채권 관리를 통해 중·저신용자 신규대출을 지속 취급하기 위한 여력 확보
- 대출관리·증자 통해 BIS비율을 14% 수준에서 안정적 관리
- 고유동성 채권 확보, 차입한도(Credit Line) 확대 등을 통해 중·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서도 유동성을 건전하게 관리

### 3) 케이뱅크

- **(대출공급)** 향후 3년간 2.77조원까지 중·저신용자 대출 잔액 규모를 확대할 계획

- 신용대출 잔액의 성장과 함께 중저신용자 비중을 30% 이상으로 유지하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

#### <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계획 (단위: 억원) >

구 분	'23년 11월말	'24년	'25년	'26년
중·저신용대출 잔액	21,929	25,007	26,303	27,703

\*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지속 확대, 전체 여신 건전성 제고 등 고려·산정

\*\* '23년11월말은 말잔(개인사업자신용대출 등 미포함), '24~'26년은 평잔(개인사업자신용대출 등 포함)

- **(CSS고도화)** 대안정보 특화 머신러닝 모형 개발 및 케이뱅크 앱 이용정보를 활용하는 등 CSS 고도화 추진

- 통신데이터 기반 특화모형을 개발하고, 모바일사용시간, 데이터 사용량,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 사용정보 등 추가 대안정보 활용 확대

- 케이뱅크 앱 이용 및 상담 정보 기반 신규 대안항목(가입기간, 메뉴별 클릭, 체류·경과 시간 등)을 발굴, 고객행동평점(BS)에 적용 계획

- **(건전성관리)**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및 부실채권 회수활동 등을 강화하고, 유동성 긴급대책 계획 점검 및 유상증자도 지속 추진

- 과거경험 데이터 기반으로 우량 중·저신용자를 선별하고, 취약 차주 및 초기 연체전이율 정기 모니터링 등을 통한 관리

- 부실채권 증대에 따른 회수관리조직을 확대하고, 상담안내 및 회수활동을 위한 채권관리시스템 도입

- 유동성 위기 시 유동성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 및 대응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긴급대책 계획(Contingency Plan) 운영

- 유상증자 추진을 통해 고유동성 자산 및 신사업 투자자금으로 활용 예정

① 은행은 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비교 공시\*

\* 은행연합회 비교공시시스템

② 금융당국은 이행현황을 점검\*(분기별)하고, 필요시 개선 권고

**< 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, CSS 고도화 및 건전성 관리 계획 이행 여부 >**

- '26년말까지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(평균) 30% 이상 달성여부를 분기 단위로 점검
- 대안정보 확대 실적 등을 포함한 CSS 고도화 실적과 건전성 관리 현황을 공개

③ 인터넷전문은행이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·허가 등에 고려

-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·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 여부를 질적 판단요소\*로 감안

\* 사업계획의 신뢰성,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 평가 시 반영

④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, CSS 구축 및 건전성 관리 계획을 면밀하게 심사

⑤ 인터넷전문은행 IPO 시 상장 관련 서류, 증권신고서에 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명확하게 기재·공시(한국거래소)

\* 거래소는 공익 실현,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 요구 가능

## IV. 향후 계획

- '26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'27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 검토